

작품 내용

제 목	무명 작가의 생각을 사는 법
내 용	"조희수 27." 하영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몇 달 동안 밤을 새워 써 온 단편 소설이었다. 누군가에게 읽히기만을 바라며 인터넷에 올렸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웃거나 울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친구가 다급하게 하영을 불렀다. "야, 이거 네 소설 아니야?" 친구가 보여 준 화면에는 하영의 소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었다. 제목도, 내용도, 결말도 모두 같았다. 달라진 것은 작가의 이름뿐이었다. 그 글은 수십만 명이 읽었고, 수많은 칭찬을 받고 있었다. 하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명 자신의 글인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천재 작가라고 불렀다. 자신의 몇 달이, 자신의 고민이, 자신의 밤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하영은 글을 쓰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도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차피 또 누군가 가져가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저작권을 법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창작자의 시간을 인정하고, 노력을 존중하며, 꿈을 지켜 주기 위한 약속이다. 한 편의 소설에는 수백 번의 수정이 있고, 한 장의 그림에는 수없이 덧칠한 흔적이 있으며, 한 곡의 음악에는 수많은 실패와 연습이 숨어 있다. 결과물은 몇 분 만에 소비될지 몰라도,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복사와 붙여넣기가 너무 쉽다. 사진 한 장, 영상 하나, 그림 한 점을 클릭 몇 번이면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라왔으니까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길가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인터넷에 있는 창작물도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다. 며칠 후, 하영은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작가님, 원작을 찾다가 이 글이 원래 작가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하영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봐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글을 쓰게 만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작품을 지켜 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출처를 남기고, 허락을 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들의 작은 양심이라는 것을. 저작권은 종이 위의 딱딱한 법 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은 소중합니다.'라고 말해 주는 사회의 약속이다. 만약 이 약속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도, 음악도, 영화도, 게임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세상은 새로운 상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언젠가 우리도 창작자가 될 수 있다. 학교 수행평가에서 쓴 글 한 편, 직접

찍은 사진 한 장, 친구를 위해 만든 영상 하나도 모두 누군가의 창작물이다. 그때 내 노력을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가져간다면 허탈감을 느낄 것 이다.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다. 출처를 밝히고, 허락을 구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작품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다. 그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꿈을 이어 주고, 또 다른 이야기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 어찌면 우리는 책 한 권이나 노래 한 곡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생각과 시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꿈을 함께 사는 것 인지도 모른다.